



예수님 수난에 동참하는 사순시기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m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 교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신명 26,4-10

[화답송] ..... 시편 91(90),1-2.10-11.12-13.14-15 (◎15ㄴ 참조)



(후렴) 주 님, 환 난 가 운 데 저 와 함 께 계 시 읍 소 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제 2 독서] ..... 로마 10,8-13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마태 4, 4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 음] ..... 루카 4, 1-13

## [성가안내]

- 입당성가 [118] 골고타 언덕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영적
- 파견성가 [122] 구원의 십자가

## 미 사 봉 헌

| 연미사                         | 봉헌 가족       |
|-----------------------------|-------------|
| 전 마지 마가렛                    | 이 상홍 스테파노   |
| 이 영우, 이 태묘                  | 유 경자 데레사    |
| 이 정진 안토니오                   | 김 은송 누시아    |
| 이 정진 안토니오                   | 장 해운 크리스티나  |
| 이 정진 안토니오                   | 김 인수 안드레아   |
| 최 순자 막달레나                   | 정 동주 유스토    |
| 최 순자 막달레나                   | 장 수림 에피파니아  |
| 최 순자 막달레나                   | 정 리드비나      |
| 김 금옥                        |             |
| 생미사                         | 봉헌 가족       |
| 이 영애 레지나                    | 김 은송 누시아    |
| 이 미진 조앤 그레이스                | 이 지훈 아네스    |
| 김 은송 누시아, 오 준석              | 이 지훈 아네스    |
| 이 병국, 이 미진 조앤 그레이스          | 가족          |
|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이 지훈 아네스       | 가족          |
| 강 중윤                        | 강 혜숙 바울라    |
| 박 수정 크리스티나, 박 수진 줄리아        | 양 미숙 마리아    |
| 김 기례 레지나                    | 유 경자 데레사    |
| 민 정신 아폴로니아                  | 유 정옥 유스티나   |
| 김학분 루시아, 민정신 아폴로니아, 안영옥 분다  | 성교회         |
| 김 프란치스카                     | 이 영애 레지나    |
| 이병국 요한, 이양순 막달라 마리아, 박정자 로사 |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
| 배인순 야카다, 이서원 마리 로사, 노혜영 리오바 | "           |
| 이 서원 마리 로사                  | "           |
| 김 영희 (감사)                   | 김 영희        |

| 주일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기도   | 성찬봉사                    | 복사 1    | 복사 2    |
|-------|----------|---------|----------|----------|-------------------------|---------|---------|
| 3월6일  | 이지훈 아네스  | 박기목 알버트 | 민덕미 안젤라  | 민덕미 안젤라  | Fr. Carolo Sr. Timothea | 한창희 바오로 | 이지연 안젤라 |
| 3월13일 | 이영노 올리안나 | 민완준 필립보 | 이경자 올리안나 | 이경자 올리안나 | 유정옥 유스티나                | 김하나 미리암 | 장동환 헨리코 |

● 맨하탄 한인 공동체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 (2022. 3. 6.)

- 주례 : 작은 형제회 관구장 Kevin Mullan 신부님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본당 주님 Fr. Thomas Gallger
- 한인공동체 초대 신부님 김 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 현 한인공동체 담당 김 진열 가롤로 신부님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며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께 축하드립니다.

● 2022 사순시기 '공동체 공동 보속'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대성당에서 바칩니다.
- 매주 공동체의 한 단체씩 주관을 하겠습니다.
- 3. 4 : 사목협의회      3. 11 : 청년회      3. 18 : 연령회
- 3. 25 : 성소후원회(양업회)    4. 1 : 울뜨레아      4. 8 : 꾸리아

● 부활 판공 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성주간 전까지 받으시는 모든 고백성사는 올해 부활 판공 성사로 간주됩니다.

● 청년 미사 4월 9일 (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 미사 시간 :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3월 13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 Begins

[성사 안내]

|        |                            |
|--------|----------------------------|
| 주일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미사   |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
| 고해성사   |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
| 혼인성사   | 당분간 중단                     |
| 유아세례   | 당분간 중단                     |
| 예비자 교리 |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                |                      |              |
|----------------|----------------------|--------------|
| 울뜨레아           | 첫째 주일 11:00 am       | Conf. Rm(2F) |
| 학부모회           | 첫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1B       |
| 요셉회            | 둘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2E       |
| 성모회            | 둘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2C       |
| 연령회            | 셋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1B       |
| 꾸리아            | 셋째 주일 11:00 am       | Conf. Rm(1F) |
| 성소후원회(양업회)     | 셋째 주일 11:00 am       | 교육관 2E       |
| 성령기도회          | 06:00pm~07:30pm      | Conf. Rm(2F) |
| 예수성가정회 (FYMNY) |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
| 사목협의회          | 넷째 주일 11:00am        | 프란치스 룸       |
| '신명' 풍물패       | 둘째, 넷째 주일 2:00pm~    | 교육관 3A       |
| 예비자 교리반        | 매 주일 10:30 am ~      | 교육관 3A       |
| 청년회            | 매 주일 10:30 am ~      | 교육관 2A       |
| 하늘처럼 성가대       | 매 주일 11:30am~13:30pm | 교육관 3B       |
| 청년 전례부         |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022년 정 순택 대주교 사순 메시지

“ 하느님과 화해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2 코린 5,20;6,2)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거나 혹은 경제적 궁핍함을 겪거나, 혹은 소중한 꿈들을 접어야하는 절절한 아픔과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새롭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전 지구적 환경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더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년여 전에 지구상 어딘가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 삼키고, 수억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느 한 나라만 잘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함을 우리 모두는 단단히 배우고 있습니다.

전 지구 공동체적 대응과 병행해서 함께 가야 할 사실 하나는, '모두'와 '각자'는 사실 다른 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있기에 우리는 '각자'가 존립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있어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모두'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각자' 하느님 앞에 진실되이 스스로를 돌아 보도록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낳은 아픔과 상실들 속에 하느님은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속에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방향 잃고 헤매는 청춘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많은 것을 이루어왔던 지난 시간들이 우리 손을 떠나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순 시기, 이제는 “하느님과 화해 하십시오.” (2 코린 5,2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당신 아드님을 대신 피흘리게 하시고 죽음에 부치시어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덧붙여 3월 9일은 우리가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정치가는 사랑의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프라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분을 새 대통령으로 보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이 사순시기, 십자가 위의 아드님 예수를 통해 하느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시 느껴 보십시오.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2 코린 6,2)”

[2022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 하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정주(소화테레사)     | 김동희(헬레나)    |
| 김용기(요셉)        | 지군자(스테파니)   |
| 정창동(폴리나)       | 진정은(마리아)    |
| 고종호(마태오)       | 이진자(세실리아)   |
| 이병국 (요한)       | 박 명순 (모니카)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이 경희 (미카엘라) |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6,39-45)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고 복음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사십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유혹이 집약된 공격을 물리치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538참조)

악마의 세가지 맹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세 번 말씀하신 이 표현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에만 의지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과 희망의 근거였던 '하느님의 은총'에 송두리째 자신을 맡기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하느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여 악마를 물리치셨고,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제1독서 신명기는 '말물의 봉헌'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의 업적을 찬미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과 뚝은 팔로...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고대의 전례 양식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신명기 8,2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십년간 시험하실 때 유혹이 많았지만 은총은 더 넘쳤습니다.

오늘의 독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바오로는 신명기 30,14를 인용하여 '의로움'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은총이 히브리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 말씀의 은총에 의지할 수 있게 되어 구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성 요셉 성월

복음은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른 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는 달이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조력자로 등장한다. (마태 1, 24 참조)

구세사에서 요셉 성인을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직업이 목수였고, 약혼자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갈등하였으며,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헤로데 임금의 폭정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하였다는 기록뿐이다.

(마태1,19-24;2,13-15;13,55 참조).

그럼에도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초대 교회 때부터 매우 깊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19일이 요셉 성인의 축일로 자리 잡은 것은 12세기 무렵이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하려는 십자군은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자 나자렛에 교회를 세웠다. 그 뒤로 성인에 대한 공경과 축제는 주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전파 되었다.

1479년 식스토 4세 교황이 요셉 성인의 축일을 모든 교회로 확산 시켰다. 1870년 비오 9세 교황이 요셉 성인을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하였고, 1955년 비오 12세 교황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수호자 성 요셉 축일'로 정했다.

## 사순시기에 대하여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순'(四旬)은 본디 '사십 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일을 걸었다(1열왕 19,8).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 (마태 4,1-2),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정화의 시간을 뜻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는 금육과 금식을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136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사순시기동안 거행하는 전례는 신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뜻을 새긴다.